

야마나카 관음당

사나게 신사의 야마나카 관음당은 지금은 별개의 신앙인 신도와 불교가, 천 년 이상 일본에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조용히 상기시켜 줍니다. 이 관음당은 10 세기 후반에 조각된 것으로 알려진 자비의 보살, 천수관음상을 안치하기 위해 16 세기에 세워졌습니다.

당시의 사나게 신사에는 많은 섭사(주제신과 관계 깊은 신을 모시는 부속 신사), 별당사원, 승원이 존재했는데, 야마나카 관음당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불상과 사당은 본전에서 북동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산 중턱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동쪽에서 온다고 하는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당은 1868 년 메이지 유신으로 신불분리령이 내려질 때까지 사나게 신사의 일부였습니다. 신불분리령이 내려지며 많은 불당과 불상 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마나카 관음당은 사나게 신사의 궁사(宮司)가 '신사 부지 바깥에 있으므로 관계없다'고 설득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야마나카 관음당은 천수관음상과 신불분리령으로 철거된 인근 불당에서 들여온 불상 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